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2년 2월 17일(목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6.(수) 14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2. 2. 16.(수) | 담당부서 | 반도체디스플레이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박찬기 과장(044-203-4270) | 담 당 자 | 김건혁 사무관(044-203-4274) |

#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 파고에 공동 대응 나서다

**- 22년 반도체 산업계 56조원 이상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-**

**-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신설해 올해부터 매년 1,200명 인력양성하고,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지정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도 추진키로 -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**2.16(수) 14시 서울 롯데호텔**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**"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"**를 개최하였음

○ 정부와 산업계는 **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**을 위한 **투자 활성화 방안**을 논의하였으며, 기업들의 **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사항을 모색함**

- **(일시/장소)** 2.16(수) 14:00~15:30 / 서울 롯데호텔 36F 아스토스위트홀
- **(참석자)**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, 메모리·파운드리·팹리스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등 14개 기업 대표
- **(주요내용)** ①2022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및 대응전략 논의
  ②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투자, 경영 관련 지원방안 모색

□ 최근 글로벌 주요국, 기업 간 **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**이 치열해지고, **러시아-우크라이나發 지정학 리스크, 원자재 가격 상승,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** 등으로 반도체 **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**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,

○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**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각심**을 가지고,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



□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'22년 56.7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. 이는 '21년 51.6조원 투자실적 대비 10%가 증가한 수치임

○ 특히, 금년도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, **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·중견 기업**은 **약 1조 8,000억원, 팹리스·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·중견 기업은 약 1조 3,000억원 규모의** 투자 계획을 밝힘

□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, 시설투자,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함

○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, 대학의 학생·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**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**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

○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, 미국, 중국, 대만,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**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,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**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함

○ 그리고,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,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~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,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**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**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

□ 문승욱 장관은 "반도체 산업은 코로나發 경기 침체 속에서도 **사상 최대 수출, 글로벌 1위 기업**을 만들어 낸 우리 경제의 **든든한 버팀목**이며,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**경제안보 자산**"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

○ “최근 유가 상승 등 일시적 요인으로 1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, **수출이 역대 최고의 호조세**를 이어나간 배경에도 **반도체**의 역할이 컸다”라고 평가함

○ 아울러, **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,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**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·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듯이, **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·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**해야 한다고 당부함

□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관해 문승욱 장관은

❶ “반도체 기업들은 **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**에 이어, 올해도 **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**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,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,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**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**하겠다”고 밝힘

- 이를 위해, “**전기·용수·테스트베드 등** 반도체 **특화단지 기반시설**에 대한 **과감한 대응 투자**를 지원하고, 관계부처, 지자체가 참여하는 ‘**반도체 투자지원기구**’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**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겠다**”라고 의지를 표명함

❷ 우수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, “금년까지 **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**, 올해에는 **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**해 매년 **1,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**”라고 밝혔음

-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**석·박사급 인재 양성**을 위해서는 **AI반도체, 전력반도체, 첨단소부장, 패키징**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**”반도체 대학원“을 지정**하고 **10년 이상 집중 지원**하겠다”라고 강조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김건혁 사무관(☎ 044-203-42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참고** **간담회 개요**

## 1. 개최 배경

□ 기술 패권경쟁,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및 정부의 대응전략 모색

□ 국내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, 공급망 확대, 인력확보에 관한 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책 논의

## 2. 행사 개요

□ 2.16(수) 14:00~15:30, 소공동 롯데호텔 36F 아스토스위트

□ 주요 참석자 : 산업부 장관, 이정배 반도체 산업협회장, 메모리·파운드리·팹리스 기업, 소재·부품·장비기업 등 14개 기업 대표

□ **주요 논의내용 :** ① ’22년 **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및 대응전략** ② **기업 애로사항 청취** 및 **투자, 인력확보 등 지원방안** 모색

## 3. 세부 일정

| 시간 |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4:00~14:02 | (2’) | ▪ 기념촬영 | 참석자 |
| 14:02~14:07 | (5’) | ▪ 모두발언 | 산업부 장관 |
| 14:07~14:10 | (3’) | ▪ 반도체 산업계 대표자 발언 | 반도체협회장 |
| 14:10~14:25 | (15’) | ▪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 변화 및 전략적 대응방향 발제 | 대외경제정책硏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 |
| 14:25~14:35 | (10’) | ▪ 반도체 산업계 ‘22년 계획 및 지원 필요사항 발제 | 반도체협회 부회장 |
| 14:35~15:28 | (53’) | ▪ 투자 확대방안 논의, 건의사항 청취 | 참석자 |
| 15:28~15:30 | (2’) | ▪ 마무리발언 | 산업부 장관 |

* 장관 모두발언부터 기념촬영까지만 공개, 이후 일정은 기자단 퇴장 후 진행